



유엔기념공원 사후 안장자 8인의 스토리

“전우가 잠든 그 곳에 나를 묻어주오”

6·25전쟁 네덜란드 참전용사 윌렘 코넬리스 드 바우즈르씨의 유해 안장식이 지난 12일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렸다. 지난 2015년 5월 프랑스인 레몽 조셉 베나르씨를 시작으로 4년간 8명의 6·25 참전 유엔군 용사들이 사후에 한국 땅에서 영면에 들었다. 유엔기념공원은 6·25전쟁 당시 혹은 부상으로 인한 사망자에 한해 안장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11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CUNMCK)에서 사후 개별 안장을 잇달아 승인해 사후 안장자가 증가하고 있다. 평생 한국을 잊지 못하다 죽어서라도 한국에 온 노병 8명의 사연을 살펴본다.

레몽 조셉 베나르=유엔기념공원 첫 사후 안장자. 생전에 가수 이승철 씨와의 인연으로 안장식에 이 씨가 참석해 화제가 됐다. 부인 니콜 씨도 남편 옆에 묻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맥코더=2001년 타계하면서 “유엔기념공원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지만 부인의 반대로 사후 14년 만에 안장됐다. 2012년 부인이 숨지면서 함께 참전했던 형과 유족들이 늦게라도 고인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버나드 제임스 델라헌티=6·25전쟁에서 살아남은 미국인 참전용사를 가운데 첫 안장자다. 미군 2사단 중위로 참전했고, 휴전 직전 포탄 파편이 얼굴 쪽에 튀어 부상을 입기도 했다. 1980년 주한 미군의 교육 지원 담당관 자격으로 한국에 돌아와 한국인 이영숙 씨와 결혼해 한국에서 살다 91세 일기로 운명했다.

니콜라스 프란스 웨셀=평생을 그리워하던 한국에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을 통해 2001년 방문한 뒤 경이적인 발전을 이룬 모습에 무한한 애정과 큰 자긍심을 느끼고 사후 안장되기를 원했다.

앙드레 벨라발=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겨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전우들이 잠들어 있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이름	국가	참전기간	사망일	안장일
레몽 조셉 베나르	프랑스	1950.11.29. ~ 1952.01.01	2015.03.01.	2015.5.15.
로버트 맥코더	영국	1950.08.28. ~ 1952.08.12.	2001.05.27.	2015.11.11.
버나드 제임스 델라헌티	미국	1953.06.03. ~ 1954.06.08.	2016.02.09.	2016.02.20.
니콜라스 프란스 웨셀	네덜란드	1953.01.07. ~ 1953.11.18.	2015.04.07.	2016.06.12.
앙드레 벨라발	프랑스	1953.03.10. ~ 1955.02.28.	2015.07.02.	2016.10.27.
요한 테오도로 알데베르트	네덜란드	1951.07.21. ~ 1952.08.16.	2017.02.04.	2017.09.27.
윌리엄 스피크먼	영국	1951.11.04. ~ 1952.08.12.	2018.06.22.	2019.02.19.
윌렘 코넬리스 드바우즈르	네덜란드	1953.02.14. ~ 1953.08.29.	2018.10.28.	2019.03.12.

유언을 받들어 아들이 직접 프랑스 한국 대사관으로 연락해 안장이 성사됐다.

요한 테오도로 알데베르트=“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산화한 동료들이 잠들어 있는 대한민국 땅에 내 유해를 묻어 달라.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싸운 목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지켜보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다.

윌리엄 스피크먼=영연방 최고 무공훈

장인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수여한 전쟁 영웅. 국가보훈처의 재방한 프로그램을 통해 2010년부터 4차례 한국을 방문해 참전용사들에 우호적인 한국인에 감령 받아 사후에 묻히기를 원했다.

윌렘 코넬리스 드바우즈르=참전 중 적의 기습을 받아 두 다리를 잃었다. 함께 싸운 전우 5명도 전사했다. 전쟁 후 유증으로 힘겨운 일생을 보내면서도 내내 자신이 지킨 한국을 그리워했다.

전쟁·인권 영화 매달 무료 상영



4월21일 다키스트 아워

국립국제경제동원역사관(관장 윤태석)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전쟁과 인권을 주제로 한 영화를 상영하는 문화행사를 연중 개최한다. ‘전쟁과 인권 상영회’로 이름 붙여진 이번 행사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세 번째 일요일 오후 2시 역사관 6층 멀티미디어실에서 열린다.



캠벨 에이시아의
평화를 찾아서

“넓은 책상 위를 메운 270장 사진 속의 젊은 군인 아저씨들. 누군가의 아들, 오빠, 형, 동생일텐데, 이 분들 중 박지은 할머니의 아버지가 있었으면...”

지난 2월 13일, 아직 창밖은 짙잠한 새벽 5시, 책가방 속의 사진이랑 과일북을 다시 확인하고 엄마, 아빠 그리고 나 이렇게 우리 가족은 먼 광주로 향했다.

나는 작년 8월10일부터 네덜란드 참전용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 전쟁 동안 네덜란드군(NDVN)과 함께 싸우다 돌아가신 한국 카투사대원 20명의 이름을 찾고 있다. 그러던 중 한 명의 유가족이 광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박복술 이등중사의 딸, 박지은 할머니이다. 아버지의 사진 한 장 없이, 얼마나 아버지가 그리우셨을까? 내가 가진 사진 속에서 할머니의 아버지를 찾길 바라며 활짝 열린 대문을 향해 종종걸음으로 나아갔다. 내가 가져 온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보고, 또 보시던 할머니가 많았었다. “나는 핏줄이라 사진을 보면 금방 금방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잘 모르겠네.”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버지는 반골술머리에 가르마가 옆으로 나 있고 멋진 분이셨다고 하세요.” 할머니는 품품하게 보신 사진도 다시 보시며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다. 이제는 세상에 없는 오빠의 얼굴을 떠올리며 사진 속에서 오빠를 닮은 젊은 군인을 찾느라 애썼다.

할머니가 아버지의 박복술 참전용사님과 헤어진 것은 100일 정도 된 아가였을 때라고 하신다. 그때 경찰이었던 박복술 참전용사는 가족을 산 속에 피신시키고 군에 자원하였다. 그렇게 가족 곁을 떠나 뒤 박지은 할머니가 8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는 유골이 되어 돌아왔다고 한다. 할머니는 8살 어린이었으면 그 때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다. 할머니의 할아버지는 아들의 유골 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군아저씨와 들고 온



6·25때 네덜란드 반코이츠 부대에 배속된 한국인 카투사 대원들의 모습이 담긴 네덜란드 기록물. 원 안이 광주의 박복술 카투사 대원으로 네덜란드 이름인 딕(Dick)이 표시되어 있다.

항아리를 얹어 뼈 속에 있던 금니를 보고 서야 아들의 죽음을 믿게 되었다고 하셨다. 할머니의 어머니는 아들(박복술 참전용사)의 사진 두 장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셨는데 어느날 지갑을 소매치기를 당하고 말았다. 땡크 앞에 있는 사진과 총을 들고 있는 사진이라고 하셨다. 할머니의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너무 안타까웠다.

평생 아버지를 불러만 적어 없는 게 한이 됐다는 할머니의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맺혔다. 나와 엄마는 그런 할머니가 슬퍼하실까봐 울지 않으려고 눈을 크게 떴다. 박복술 참전용사님의 사진을 끝내 찾지 못하고 사진들을 남겨 둔 채 우리 가족은 다시 부산으로 왔다. 나와 함께 한국인 카투사를 찾고 있는 네덜란드의 빌립 아저씨에게 이메일로 광주에서 만나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고 박복술 참전용사님을 찾을 수 있게 한 번 더 부탁을 했다. 그리고 한 달 가량 지나, 빌립 아저씨로부터 엄청난 게 기쁜 소식이 왔다. 박복술 참전용사에 관한 기록과 복사된 사진을 찾은 것이다.

전쟁 때 네덜란드 군인들은 자신들을 돌던 한국 카투사들에게 네덜란드식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박복술 참전용사님을 ‘딕(Dick)’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박복술님은 195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T-bone고지 바로 아래의 ‘Uncle’이라는 곳에서 T-34/85 탱크의 포탄 파편을 맞고 전사하셨다고 한다. 박지은 할머니에게 그 복사된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냈는데 할머니는 오빠랑 똑같은 아버지를 확인했다며 기뻐하셨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 조금 풀렸다”며 나에게 고맙다고 하셨다. 전화가 너무도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느껴졌다. 빌립 아저씨는 원본 사진도 분명 어디엔가 있을 거라며 계속 수소문해 보겠다고 하셨다. 처음에는 돌아가시진 70년이 된 20명 카투사를 이름을 찾는 것도, 박지은 할머니의 아버지 사진을 찾는 것도 힘을 거라고 다들 말했지만, 여러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큰 소망을 이루어냈다. 나는 앞으로 남은 7명의 이름도 찾고, 참전용사님들의 기억 속에 대한민국이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 마음 속에 참전용사님들의 큰 사랑이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본지 명예기자·윤문초 6학년)

유엔·한국전쟁 관련 전문자료실 운영



유엔평화기념관(관장 박종왕)은 6·25전쟁과 UN관련 전문도서,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UNPM 자료실을 최근 개소했다.

기념관 3층에 위치한 자료실은 147㎡ 규모로, 2014년 유엔평화기념관 개관이후 수집한 700권 이상의 6·25전쟁 전문서적과 UN참전국, UN 자료 및 영상물을 열람할 수 있다. 기념관 측은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국방대학교 평화유지활동센터 등 비롯한 국내

의 유관기관과 협력해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이후 UN기록도서관을 유지해 UN관련 전문자료실로 거듭날 예정이다.

자료실은 무료로 이용가능하며 매주 화~일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지만 대출은 제한된다.

☎901-1408

■유엔평화기념관·일제강제동원역사관 가는 방법

도시철도 2호선 못골역 3번 출구에서 9번 마을버스 승차 후 유엔평화기념관·일제강제동원역사관 하차.

평생 처음 불러보는 이름, 아버지!

70년 만에 사진으로 재회한 부녀

■캠벨 에이시아는 누구

캐나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윤호중 용문초등학교 6학년.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하는 고령의 유엔 참전용사들과 나 이와 국경을 초월해 우정을 쌓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네덜란드 참전용사협회 부탁으로 6·25 때 네덜란드 부대를 돕다 전사한 한국인 카투사 20명의 명단 찾기에 나서 최근 13명의 카투사 명단을 찾아내 네덜란드 참전용사협회에 보냈다. 이번에 찾은 광주의 박복술 참전용사는 13번째 카투사 대원이다.



에이시아와 박복술 참전용사의 딸인 박지은 할머니.

■ 45년간 백운포에 방치된 안성녀 여사

일제 보복 피해

35년간 만주 등 떠돌아



1951년 부산 중구 중앙성당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의 둘째 아들 준생 씨의 장례식 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가 안성녀 여사다.

지난 3월 28일은 안중근 의사 순국 109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국권이 회복되는 날 고국으로 반장해 달라’는 유언에도 불구하고 안 의사의 유해는 행방을 알지 못해 그의 묘는 남과 북 어디에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 안성녀(安性女) 여사의 묘가 백운포 천주교공동묘지에 방치된 지 45년이 되었다. 독립운동의 ‘객관적 물증’이 없어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 현충원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어서다.

1881년 태어난 안성녀는 오빠 안중근보다 두 살 아래로 안 의사가 하얼빈 의거를 일으키자 일제의 보복을 피해 중국으로 도피했다. 1921년 함께 망명길에 오른 남편 권승복 선생이 숨지면서 타국 생활은 더욱 힘겨워졌고 일제의 눈을 피해 어린 외아들 권현을 데리고 만주지역 독립운동단체인 신민부(新民府)의 본부가 있던 중국 길림성 인근 석두하자(石頭河子)로 피신해 오래 시간 머물렀다.

아들 딸린 어머니이자 미망인으로 안 여사는 군복 수선이나 독립자금 모금, 문서 전달 같은 방식으로 항일운동을 펼쳤다고 한다. 일본 헌병에 끌려가 독립군의 은신처를 잡아 포진 교문을 받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유랑생활 도중 중국 북경에 도착했을 때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이 왔다”는 소식을 접한 중국 관리가 가족이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인쇄소와 양재점을 무상으로 차려주기도 했다. 인쇄소를 운영하며 생활하던 중 우연히 라디오를 통해 해방소식을 접한 안 여사는 그 즉시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족을 데리고 부산행 배에 몸을 싣었다. 그렇게 아들 내외와 손자 권학우(75·현 광복회 부산남부연합지부장)를 데리고 35년

만에 조국 땅을 밟았다. 흩어졌던 가족을 만나기 위해 부산을 거쳐 서울로 간 안 여사는 김구 선생의 도움으로 서울 쌍림동에 거처를 마련했지만 6·25가 터져 부산으로 피란을 내려 왔다. 부산시의 도움으로 영도구 신산동에 거처를 마련해 생활하다 1954년 4월 8일 지병과 노환으로 숨을 거둔다. 유족들은 인근 청학동에 여사의 묘를 세웠는데 그 자리에 부산체육고등학교가 들어서면서 1974년 이곳 용호동 천주교공동묘지로 옮겨 왔다. 여사가 세상을 뜬 지 65년, 용호동 천주

안중근 두 살 아래 여동생

하얼빈 의거로 중국 망명

해방 맞아 35년 만에 조국 행

6.25로 부산 피난 와 별세

교묘지에 묻힌 지 45년이 흘렀다. 지금에 와서 그의 독립운동을 밝혀줄 자료가 새삼 나올 리 만무하다. 안 여사의 독립운동은 2006년 숨진 며느리 오향선 여사(1910.10~2006.8)가 했던 일부 증언이 전부인 실정이다. 오향선 역시 일제강점기 김좌진 장군 밑에서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투신한 이름 높은 애국지사다.

안 여사의 항일운동 여부를 떠나, 가녀린 여성의 몸으로 일제의 보복을 피해 일평생 남인처럼 타국을 유랑하며 고된 삶을 살아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총칼로 항거하는 것만이 독립운동이라 단정할 수 없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항일운동의 개념을 좀 더 넓게 보는 국가보훈처의 전향적인 자세가 대단히 아쉽다.



UN평화문화특구 협의체 4월 소식

기관명	행사명	일시	장소	관람료	문의처
부산 박물관	박물관 투어 〈부산박물관-일제강제동원역사관-유엔평화기념관-유엔기념공원-부산박물관〉	4. 21. (일) 오후	부산박물관 및 UN평화문화특구	무료	610-7184
	드림드림 박물관 교실 〈부산 역사 속 독립군 의자 만들기〉	4. 13. (토) 오전	부산박물관	무료 (단체접수)	610-7182
	부산문화가 있는 날 〈최수영여왕놀이〉	4. 26. (금) 오후	부산박물관 동래관 앞 광장	무료	610-7181
유엔평화 기념관	2019 UN참전국 필리핀 해외봉사활동 참가자모집	4월 중	홈페이지 (www.unpm.or.kr)	100만원 (예정)	901-1402
	2019 EU, UN참전국국제기구 해외탐방프로그램 참가자모집	4월 중	홈페이지 (www.unpm.or.kr)	570만원 (예정)	901-1402
	국가기념관 스마트 전시안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오픈	연중	-	무료	901-1408
(재)부산 문화유산	어린이 유적탐 아빠! 우리같이 놀자 -둘레 카메라 놀부의 좌충우돌 주부 체험기	4. 9. (화) ~ 6. 16. (일) 11:00~12:00	부산문화회관 [사랑재극장]	20,000원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0회 정기연주회 <동정>	4. 16. (화)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000원 ~ 5,000원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 시즌5 - '오페라 이야기!'	4. 24. (수)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10,000원	
	부산시립국악원악단 제20회 정기연주회 (전시)	4. 26. (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0,000원	629-8600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 민화로 보는 3·1운동의 단상	4.1. (월) ~ 4.30. (화) 10~18시 (매주 월요일 휴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4층 중정	무료	
	(문화행사)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 전쟁과 인권 상영회 상영작: 다키스트 아워	4.21. (일) 14:00		무료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자유학기(년)제 프로그램 '우리는 결의했어!'	4.2. (화) ~ 4.30. (화) 일정 및 시간 유선 협의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6층 멀티미디어실	무료	629-8632
	자유학기(년)제 프로그램 '출발! 역사관 탐험대'			무료	
	(교육) 체험 프로그램 '내 책상 위의 소녀상'			무료	629-8633
	(교육) 체험 프로그램 '포포 브레이크'			무료	
부산 예술회관	작은영화콘서트<위플래쉬>	4. 16. (화) 16: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무료	612-1372
	제4회 예인예술제 -예인미술전-	4. 29. (월) ~ 5. 3. (금)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무료	